

最近의 國際經濟 環境變化와 通商政策 方向



朴 弼 秀
商工部 長官

本稿는 지난 7月 20日 大韓商工會議所 主催 「最高經營者大學」(濟州 西歸浦 KAL호텔)에서 朴弼秀 商工部 長官이 行한 “最近의 國際經濟 環境變化와 通商政策 方向”이란 題下의 講演內容을 要約·掲載한 것임

- (編輯者註) -

I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國際經濟 상황과 世界經濟 속에서의 우리의 위상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通商政策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최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세계경제 질서의 再編과 新보호주의 확산의 두 줄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시대별 先導經濟 세력을 보면 1945년도부터 20여년간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美國經濟에 대한 도전으로 미국 주도의 통화와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게 되고 80년대에는 寡頭體制로 본격적인 마찰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II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요인은 공업화와 기술의 확산에 의한 경제력 분산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西獨 등 유럽제국과 日本 및 아시아 NICs의 경쟁력 향상과 이에 따른 국제비교우위 構造의 변화, 美國經濟의 상대적 지위약화, IMF체제 붕괴와 GATT의 기능약화로 인한 국제경제체제의 불안정 등이 그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貿易收支의 지역간 불균형심화 즉 美國의 막대한 무역수지적자와 日本, 西獨, 臺灣, 韓國의 국제수지 흑자는 이원화된 대립체제를 형성하게 되어 공정무역 및 상호주의에 의한 對美 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으로 나타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수퍼 301조이다.

또한 美·日 양국간에도 무역불균형 개선을 목적으로한 구조조정협회가 끝났는데 미국은 상대국에 대해 시장개방이 아닌 정부정책, 기업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변경을 요구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自由·多者·無差別主義 原則이 명분상으로는 강조되면서도 실제로는 雙務·地域·管理貿易主義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무역마찰을 GATT 多者間 방식보다는 雙務協商(무역보복위협 병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통상마찰이 과거 美·日간, 美·開途國간 마찰에서 美國, EC, 日本등과 NICs간의 마찰로 확산되었고 그 범위도 과거 상품위주에서 금융, 보험 등 서비스분야, 지적소유권, 농산물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다음은 東유럽의 변혁과 東西協力 시대의 개막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 실시, 89년 하반기 동구혁명으로 정치적·경제적 자유화와 변혁의 진전, 89. 12월 美·蘇 몰타정상회담 및 90. 6 워싱턴 美·蘇 정상회담 등에서 동서간의 냉전체제 종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東·西獨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실현으로 장기적으로는 통일독일의 경제력이 일본 수준으로 접근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방제국의 동구권국가에 대한 경제지원강화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EC, EFTA, COMECON간의 협력증대방안이 모색되어 東西유럽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III

다음은 세계경제의 地域主義化 심화이다.

첫번째 지역주의는 EC통합으로서 美國, 日本의 경제규모의 증대와 신흥개도국의 등장, 규모의 경제 확대와 域內貿易 장벽제거에 의한 비용절감이 절실함에 따라 92년까지 무역장벽의 완전철폐,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이동 등을 통해 市場單一化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C통합은 경제력증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우리상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EC경제권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는 EC내 기업의 경쟁력강화로 우리상품의 對EC 수출에 경쟁심화가 예상되며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섬유, 신발 등에 대해 域內 산업보호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증대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와함께 EC와 EFTA와의 경제통합이 추진되어 궁극적으로는 EC를 축으로한 EFTA, 동구간 汎유럽 경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두번째로 세계경제에서 블록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이다.

亞·太경제협력 움직임은 1950년대부터 움직임이 있어 왔으나 APEC를 통해 최초로 域內國家間的 공식 협력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발전을 이루게된 배경은 多者間 자유무역증진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공동이익 추구하고 EC통합 등 세계경제의 블록化 추세에 따른 亞·太지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세계경제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亞·太지역의 비중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亞·太경제협력의 전망은 域內 協力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증대될 전망이며 중·단기적으로는 中國·臺灣, 홍콩도 APEC에 참여하여 역내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고 91년 개최되는 제3차 서울각료회의 이후에도 APEC이 계속 개최되어 제도적 협력체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 이루어지는 블록은 美國을 중심으로한 자유무역권(FTA)이다.

이 블록의 추진배경은 EC통합에의 대응과 약화된 美國의 세계경제에서의 지위회복 및 무역수지 적자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향후 10년간에 걸쳐 관세와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美·加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美·멕시코 정상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합의되었으며 부시美대통령은 對中南美 경제지원과 FTA와의 연계방침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일본, 호주, ASEAN, 대만, 한국 등 주요 태평양연안국들과도 개별적으로 FTA체결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점진적 시장자유화클럽 형성을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이다.

UR협상은 86. 9월부터 4년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의 목표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완화, GATT규율강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한 規範 마련을 목표로 90. 12월 부르셀 각료회의에서 종결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협상을 통해 反덤핑, 세이프가드, GATT기능 등 제도적·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에 의견이 접근되었고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기능 도입과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화 등에는 이미 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反덤핑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조사절차를 명료화해 나가되 迂廻덤핑 등 새로운 덤핑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이다.

IV

그러나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각국의 이해가 상충되는 주요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對立을 보이고 있다.

먼저 농산물은 미국과 EC간의 보조금 감축수준과 방법에 관한 대립이 있고 섬유는 섬유수출開途國과 美國간에 纖維交易자유화 방법에 관한 대립이 있으며 서비스는 선진국에서 가급적 많은 분야를 조기에 開放하려고 하는 반면 開途國은 점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또한 知的所有權은 선진국은 권리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려는 반면 開途國은 권리의 활용 측면에서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년말까지 UR協商을 타결하기 위해 7월말까지 15개 세부 그룹별로 조건부 협상타결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합의된 협상운곽을 토대로 UR전반차원의 trade-off협상과 정치적 타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UR협상에 의해 형성될 새로운 무역질서로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완화 및 섬유교역의 자유화, 농산물교역자유화 등의 자유무역 진전과 보조금지급 경쟁지양, 덤핑행위규율에 관한 규정개선 등의 공평 무역체제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GATT의 분쟁해결 능력강화, 각국의 무역, 산업정책과 제도에 대한 多者的 감시기능 강화, 무역 금융·통화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IMF, IBRD와의 협의기능강화 등으로 일방주의, 쌍무주의,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多者 무역체제 강화와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多者 規範 마련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통화질서의 혼란과 開途國의 외채 위기가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한 브레튼우즈체제가 美國경제의 약화에 따른 달러화의 지속적 약화로 붕괴됨에 따라 71년부터 變動換率制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80년대초 美國의 막대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변동환율 제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율이 강세와 약세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었지만 90년대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목표換率帶의 도입을 통해 현행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통화질서의 혼란속에서 開途國의 외채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세계 外債의 총액은 89년말 현재 약 1조2,000억 달러로서 開途國의 주소득원인 1차상품의 가격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채무상환 불능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으나 東歐 민주화에 대한 선진국의 對東歐 경제지원증가 등으로 기존 채무국에 대한 지원감소가 예상되고 開途國의 경제사정이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개도국 외채문제는 획기적인 개선전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V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는데 이는 對外依存型 성장전략에 주요하였기 때문이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 또한 지대했다.

이를 통해 1986년에는 무역수지 흑자 元年을 맞게 되었으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은 다시 적자로 반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으나 남은 하반기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면 극복되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규모로 볼 때 89년말 기준으로 2,100억 달러로서 세계 13위의 經濟中進國이 되었으며 특히 교역규모면에서 全世界교역 중 수출 2.0%, 수입은 1.9%의 비중으로 세계 12위권의 교역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제산업분업체제 속에서 볼 때 자본 및 기술집약분야의 생산능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다.

금년도 전망으로 자동차는 130만대로 10위, 철강은 8위, 조선과 VTR은 日本에 이어 2위이며 놀랄만큼 발전한 반도체도 日本, 美國 다음이며, 로보트, NC 공작기기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특히 纖維輸出은 세계 3위로서 일부에서는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섬유와 신발류산업은 사양산업화시켜서는 안된다.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韓國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대내적으로는 世界經濟와의 조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자세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 貿易政策의 선진화, 투명성, 무차별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자유무역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주창하고 교역의 내용면에서도 수출중심보다는 무역의 확대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多者次元의 국제무역규범정립을 위한 협의에서

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韓國이 국내시장을 폐쇄하고 수출에만 전념하는 나라는 인식을 탈피하며 세계 주요교역국으로서의 모든 나라와 함께 發展과 번영을 기할 수 있는 성실한 이웃으로서의 자세확립과 美國, EC, 日本 등 기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의 확대균형이 도모되어야 하며 東南亞 등 후발개도국과의 기술 이전, 자본협력을 통한 경제협력확대와 東歐圈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진출을 위해 상호보완성에 입각한 교역 및 투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物價와 國際收支라고 본다.

物價問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상반기에 이미 7.4%나 상승하여 하반기 중에는 2~3%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물가가 오른 원인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제조업의 임금이 극심한 노사분규 등으로 48% 내지 60%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퇴직금, 복직관계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100% 정도가 상승되었다.

여기에 일기불순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년 상반기 중에 10% 이상 올랐으며 특히 축산물가격은 25% 정도 올랐다. 그러나 다행스런 것은 공산품가격이 3% 오르는데 그쳤으며 섬유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인하되었으나 물가에 기여한 비율은 불과 0.017% 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물가가 오르는 근본원인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전·월세값과 임대료의 인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전·월세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農産物價格도 하락하고 있다.

특히 반가운 것은 임금인상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며 작년에 비하여 노사분규 발생건수도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이 전·월세값의 상승으로 상쇄되어 별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임금인상보다는 임대주택 등 소위 복지후생측면을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노사문제도 급년이 고비라고 생각한다.

VI

다음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國際收支黑字의

유지이다.

급년도 경상수지는 1억달러 내외의 흑자 또는 적자가 전망된다. 이처럼 국제수지가 4~5년만에 적자로 반전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출을 장려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은연중 정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무역금융 등 수출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해외여행자유화와 함께 이 조치는 시기상조였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국제수지를 균형유지시키려는데는 수출을 증대하여 수입을 많이함으로써 우리 삶의 質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원이 빈곤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수입을 해야하는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 수출을 많이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輸出과 輸入을 동시에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이며 두번째 과제는 생산기술의 향상이다.

생산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生産性을 向上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수출이 안되고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은 과거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좀더 나은 것, 좀더 비싼 것, 좀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생산기술이 향상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데 기업의욕의 저하와 기초과학 분야의 취약함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企業의 대응방향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産業을 육성하며 기존산업의 고도화, 高附加價値化를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대외 교역에서 자체브랜드수출증대로 기업의 국제적 성가를 제고하고 국제비교 우위산업에 대해 海外投資를 촉진하며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노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중·장기적 국제화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협력확대와 함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워지는 수출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 위주에서 탈피하며 EC통합 이전에 EC域内の 생산·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시장다변화를 추구하고 위조상품의 수출, 덤핑 등 수입규제 유발행위를 지양하여 민간차원의 통상마찰해소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